

# ‘음주운전 단속 예고’에도 11월 광주·전남 700여명 적발

### 광주청·전남청 각각 325건·451건...전년 동기비 소폭 감소 최근 3년간 재범자 꾸준히 증가...“내년 1월까지 지속 추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예고에도 광주·전남에서 11월 한 달간 총 77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31일까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12월1일부터 그 다음 해 1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해왔으나,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올해는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전국 경찰서가 일제히 한 달 빨리 시작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음주운전 재범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1회 재범 건수는 ▲2021년 광주 2천394건, 전남 2천681건 ▲

2022년 광주 2천661건, 전남 2천833건 ▲ 2023년 광주 2천714건, 전남 3천152건이었다.

동기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2021년 광주 1천637건, 전남 2천641건 ▲2022년 광주 1천743건, 전남 2천677건 ▲2023년 광주 1천809건, 전남 3천74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특별단속에서는 마약 운전 적발도 병행했는데, 11월 한 달간 적발자는 없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광주 325건, 전남 451건이다.

세부적으로 광주의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지 108건, 측정 거부 10건이었다. 전남은 면허 취소 288건, 정지 145건, 측정 거부 18건으로 집계됐다.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해 11월 광주·전남에서 면허 취소·정지, 측정 거부 등 위반 행위가 각각 411건, 467건씩 적발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른 조치

와 단속 예고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안재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무고한 시·도민이 생명을 잃는 참사까지 없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휩쓸려 신체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일은 여전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6시30분께에는 무안군 무안읍에선 합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광주·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모두가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니 시·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불갑산 대보름 작전’ 학살당한 일가족, 73년만에 손해소 승소

### 유족 19명 소송...법원 “한국전쟁 시기 경찰이 불법 살해”

### 희생자 4명에 각각 8천만원씩 위자료 산정 배상 판결

한국전쟁 시기 ‘불갑산 대보름’이라는 이름의 군경 토벌 작전으로 희생당한 일가족 4명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3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일 1951년 한국전쟁 시기 군경 학살 피해자 4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명 희생자별로 8천만원씩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인 원고들에게 상속분별로 130여만~7천150여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고,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적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 희생자들은 1951년 한국전

쟁 시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일가족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28일 만인 1950년 7월23일 영광지역은 인민군에게 점령됐다.

경찰은 후퇴 직전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했고, 지역을 점령한 인민군은 군수·읍장·은행장 등을 우익인사라고 처형했다.

좌익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군경이 수복 작전을 시작한 후 더욱 극심해졌다.

영광지역은 군경 수복이 늦어지면서

후퇴했던 좌익들이 다시 마을에 돌아와 군경가족·우익가족, 빨치산 비협조자들을 또다시 살해하는 등 1950년 8~11월에만 350명이 희생된 것으로 진화위조사 결과 확인됐다.

영광 지역이 희생이 큰 것은 지리적 요인이 배경이 됐다.

전남·북 지역 빨치산들이 바다를 통해 탈출이 가능한 영광으로 물리면서 좌익 세가 강해진 데다, 영광을 둘러싸고 있는 고창과 불갑산 지역 빨치산 토벌이 늦어졌다.

이에 11사단과 영광 경찰은 1951년 지역을 수복한 후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다. /안재영 기자

## 수감 중 난동피운 재소자 ‘추가 징역형’

### 항소심 법원, 징역 3개월 원심 유지 판결

재소자가 수감 중 난동을 부려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순천교도소

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온 교도소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범행 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본래 선고받았던 형에 비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수

형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장기간의 실행보다 행동교정처리가 더 필요하다 보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 등으로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

## 경찰, 나주시의회 의장단 ‘금품 선거’ 강제수사

### 의원실·주거지 등 압수수색...휴대전화·PC 등 확보

경찰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돈 거래가 오갔다는 의혹을 받는 나주시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뇌물공여·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일부 의원들의 휴대전화와 PC, 업무용 노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날 강제수사에 나서기 전 경찰은 나주시의회가 제9대 의장단 선출 당시 돈거래가 오갔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 소속 의원 10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오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대상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 남시객 고라니로 오인 공기총 쏜 60대 입건

### 피해자 아마 다쳐 병원 치료

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나주시 남평읍 지석전에서 자신의 공기총으로

B씨의 이마를 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갔다가 낚시하던 B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포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나주=정종환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 고객님의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